

지역 매 아리

부안군, 현안사업 해결책 모색

부안군이 부군수 주재 목요간부회의를 기존 일방식 보고형식에서 실과소장 현안 토론회로 전환하고 각종 현안사업의 실질적인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19일 한근호 부군수 주재로 열린 목요간부회의를 실과소장 현안 토론회로 전환하고 각 실과소장 현안사업에 대한 토론회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아직 백산이 개발되지 않아 치사율 100%로 양돈농가에 치명적인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차단 방역 방안을 논의했으며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한 어업피해 조사 및 보상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토론했다.

또 부안읍 물의 거리 통행안전 확보 방안과 고질적인 악취 민원 해결방안,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다시 급부상하고 있는 부창대교 건설과 관련해 해남이 명소 조성 등 국내 및 중국 관광객을 유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며 향후 사업 추진시 부안군이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와 함께 부안상설시장 및 부안터미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등에 집중기로 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행복가득 부안농업 실현

부안군, 동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착공... 건축비 11억 8000만원 · 연말까지 준공

부안군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원거리 이용농가 편의제공을 위해 동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를 23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동부권은 동진면, 백산면, 주산면, 부안읍 아우르는 권역으로 논 타작물 재배와 밭작물 기계화율을 높여주고 농업인 농작업 편의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에 착공하는 동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건축비 11억 8000만원이 투입되며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부안 IC부근 동진면 하장리 1000번지(부지면적 2980㎡)에 지상 1층 1동 465.9㎡ 규모로 지어진다.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보관창고, 사무실, 세척장 등을 갖추고 트랙터 부착용 농작업 기계, 일반관리기 등 74종 농기계 175대를 구입·배치해 농기계를 임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조병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 운영하여 값비싼 농기계 구입 부담 해소는 물론



부안군 동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조감도.

내년에 적기 영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현재 상서면에 부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보안면에 부

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를 운영하며 농업인들의 편의를 돕고 농가 영농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유해 광고물 일제 정비

정읍시가 추석 연휴와 개학기를 맞아 신뜻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불법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와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 2일부터 18일까지 옥외광고협회 정읍시지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불법 광고물 합동 정비반을 편성해 주요 도로변, 어린이보호구역, 초·중·고등학교 주변 지역을 중점 정비했다.

이번 정비에는 추석 명절 귀성객 고향 방문 환영 현수막과 정당·시민 단체에서 게시한 현수막을 제거했다.

또한, 학교 주변의 음란 퇴폐적이며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해 광고물은 물론 안전한 보행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광고물에 대해 집중단속과 함께 현지 계도를 병행했다.

특히, 18일에는 수성초등학교 주변에서 캠페인을 펼치면서 시민들과 광고주, 점포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유도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 활동을 통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와 광고협회는 지난 제13호 태풍 '링링' 복구 사업에도 합동으로 노후 간판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또, 위험 광고물을 정비하는 등 풍수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시민 소통 행정 위한 언론인 정례브리핑 가져

정읍시가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한 9월 첫번째 언론인 정례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브리핑은 유영호 문화행정국장 이 국 관할 5개 과 1개 사업소의 주요 현안 사업과 향후 추진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유영호 국장은 브리핑에 앞서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정읍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해주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다가오는 가을 국 소관 많은 행사를 계획하고 있어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과 함께 추진해가야 한다"며 문화행정국의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했다.

주요 현안 사업으로 ▲제30회 정읍시 문화제 ▲MBC 드라마 제작지원 '어쩌다 발견한 하루' 방영 ▲한국·형가리 수교 30주년 기념 문화교류음악회 ▲무성서원 세계유산 등재 기념식 ▲내장산 단풍철 관광객 맞이 종합계획 ▲문화관광 어드벤처 복합놀이시설 조성사업 ▲정촌가요특구 준공식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본격적인 가을 단풍철을 맞아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하고, 행정 질서 확립을 통해 정읍을 찾는 이들에게 바른 정읍 이미지를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시가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한 9월 첫번째 언론인 정례브리핑을 가졌다.

유영호 국장은 "문화행정국의 모든 직원들이 2019~20 정읍 방문의 해의 취지에 맞게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에게 수혜가 있는 더불어 살아가는 정읍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시는 올해 2월부터 매월 둘째와 넷째 목요일에 시청 정례브리핑을 갖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례브리핑은 시정방향·역점시책·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당 국·단·실과소장이 직접 브리핑을 담당하며 충분한 질의와 응답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등 소통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음 브리핑은 복지교육국 핵심현안과 사업에 대한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귀농·귀촌 활성화 '박차'

정읍시-한국도로공사, 농산물 직거래 납품 체결

정읍시가 19일 한국도로공사와 귀농귀촌 영농체험 실습장에서 생산된 농산물 직거래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실습장에서 재배하고 있는 애호박과 옥수수 전량을 이서휴게소(하행선)에 납품하게 된다. 또, 호남고속도로 내 정읍농도주장 군휴게소·여산휴게소에도 실습장 생산 농산물 납품을 확대하기로 검토했다.

이번 계약 체결로 귀농귀촌 영농체험 실습장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로 확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귀농귀촌을 활성화하는 정책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체결식에는 유진섭 정읍시장·농업기술센터소장·한국도로공사전북본부장·이서휴게소본부장·귀농귀

촌협의회장·영농체험실습장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시의 귀농귀촌 분야 활성화에 대해 상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 유류부지 활용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르면 도로공사에서 태인IC 인근의 유류부지를 시에 제공한다. 시는 제공된 부지에 귀농귀촌 영농체험 실습장을 조성해 올해 7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유 시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많은 분이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 분야 활성화를 위한 공익적 목적이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과 식품기업이 손잡으면 '대박'

상하농원 · 국순당 고창명주 · 블랙보리 등 부가가치 창출 모델로 주목

농생명 식품수도 고창군과 국내 주요 식품 대기업의 상생협력에 대한민

국 농식품 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모델로 주목 받고 있다.

19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시민단체 (사)소비자공익네트워킹가 주관한 '2019농업-기업간 농식품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기념식'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선정된 국내 9곳의 식품기업 가운데 무려 3곳이나 고창군과 상생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됐다.

먼저, 매일홀딩스의 상하농원은 지난 2016년 고창군 상하면 일원에 개장 이후 약 33만명이 찾으며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또 지역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에도 이바지하고 있어 지역주민과 민관의 선도적인 상생사례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다.

국순당은 2006년 고창군 삼원면에서 지역농민들과 함께 농업회사법인 국순당 고창명주를 설립했다. 원료공급은 법인에 참여한 고창 농민들이 생산한 고품질의 복분자를 수매했고, 양조기술이 앞선 국순당의 기법이 결합돼 시너지 효과를 낸 사례다. 국순당 고창명주의 지난해 매출액만 18억원에 달한다.

하이트진로음료역시 고창산 블랙보리를 수매해 음료를 생산하고 있다. 앞서 하이트진로음료는 검정보리 주

재배지인 고창군,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등과 협력해 '블랙보리'를 개발했다. 보리수매제 폐지 후 위축됐던 국내 보리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우수 사례는 고창의 자연환경과 농업인들의 노후, 적극적인 행정기관에 맞아 떨어지는 결과라는 분석이다.

고창군은 산, 들, 바다, 강, 갯벌이 모두 있어 신선한 원재료 조달이 쉽다. 또 수박, 복분자, 멜론, 고구마, 땅콩 등 타 시·군에선 쉽게 시도할 수 없는 특작작물이 재배되면서 '특별한 맛'을 선보이려는 식품기업들의 안정적인 테스트베드가 되어주고 있다. 여기에 군 단위로는 드물게 고속도로 IC가 3곳(선운산, 고창, 남고창)이나 있어 유통도 편리하다.

고창군 관계자는 "민선 7기 고창군은 농생명 식품산업을 군정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식품기업은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산 농산물 구매 증가 효과로 농업인들은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선정기업은 정식품, 하이트진로음료, 국순당, 매일홀딩스 상하농원, 스타벅스, 일화, 현대백화점, 행복에프앤씨재단, HDC신라면세점 등 9개사다. 농업계와 기업 상호 간 경쟁력 제고와 우리 농산물 소비 진작 및 판로 개척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 받았다. /고창=김영식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수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명주
GIFT SET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세 | 750ml 1ea/12%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세 | 375ml 5ea/13%

GIFT SET 6세 | 500ml 향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7세 | 375ml 2ea/13%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9900
www.gangsanwine.com